



성추행 오거돈 공증, 文대통령이 대표였던 로펌이 했다

기사입력 2020-04-26 17:47 최종수정 2020-04-26 21:37

'법무법인 부산'에서 진행

현재는 노무현 전대통령 조카사위가 대표

지방선거때 오거돈 캠프 인재위원장 활동도

청 인사수석 비서관 김외숙 변호사도 이곳 출신

현정부와 특수관계 법무법인에서 공증했는데

청와대와 여권, 정말 총선전에 몰랐을까



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/뉴시스

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'4월 말까지 시장직 사퇴'를 약속한 공증(公證)서류 작성 업무를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. 이 법무법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를 지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현 대표로 있는 곳이다. 법제처장

을 거쳐 현재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김외숙 변호사가 이 로펌 출신이며, 현 대표 정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거돈 예비후보 캠프 때부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. 부산 정가에서는 여당이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사전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.

본지 취재를 종합하면, 지난 7일 해당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뒤 오 전 시장 측과 피해 여성은 '오 전 시장이 4월 말까지 사퇴한다'는 내용 등에 합의했고 이에 대한 공증을 법무법인 부산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.

부산의 한 법조계 인사는 "현 정부와 '특수 관계'에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'여당 광역단체장 성추행과 자진 사퇴'라는 사안을 알고도 그냥 넘어갔을 리는 없다"며 "청와대나 여당 핵심부에 그 내용을 알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"이라고 했다. 오 전 시장 주변의 노무현·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통해 청와대에 오 전 시장 관련 사건이 흘러 들어갔다는 말도 나온다. 이번 사건으로 오 전 시장과 함께 물러난 장형철 정책수석보좌관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다가 부산시로 옮긴 인물이다.

오 시장 측 인사들은 "우리는 공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"면서 "피해자와 부산성폭력상담소 측이 법무법인 부산을 공증인으로 정해서 공증했다"고 했다. 부산성폭력상담소 측은 "공증을 한 것은 맞지만 어느 곳에서 언제 했는지 등을 밝힐 수 없다"고 밝혔다.

[부산=김주영 기자]

- ▶ 조선닷컴 바로가기
- ▶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
- ▶ 조선일보 구독 신청하기

- Copyrights © 조선일보 & chosun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-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23&aid=0003526612>
